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種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a8769@chollian.net

어항청소선 상반기에 오염물 59만9천kg 수거 전년비 233% 경험 기술 등 체제구축 최대효과 거양

어항 907호 속초시장 표창받아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 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상반기 동안 제1·3종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에 363일간 출동, 연 102개 항

및 연안에서 부유물 4만 6,920kg, 침전물 26만6,450kg, 항행장애물 28만6,500kg 등 총 59만 9,870kg의 오염물을 수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동일 수 178%, 출동항 수 189%, 수거량 233%의 실적이다.

어항청소선은 15톤급 소형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어항은 물론 서거차항 외연도항 등 40 여마일 외측의 원거리에 위치한 제3종어항까지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군산 목포 통영 삼척 속초 등 항만과 제2종어항 및 연안수역에서도 침전물과 부유물을 수거하여 바다오염물 제거에 큰 성과를 올렸다.

한국어항협회는 그 동안 어항청소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으로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함께 지난 95년 어항청소선 인수후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쓰레기 투기 방지지도 등 어항관리와 관련한 예방지도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어항청소와 어항환경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어항907호는 강원도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항 퇴적물 준설작업과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대비한 주변환경 개선 및 어선 안전정박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국어항협회는 그러나 아직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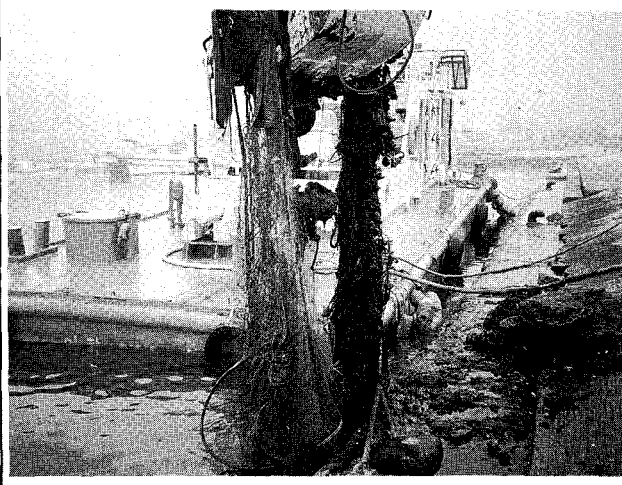
실정임을 감안, 바다환경보

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항청소의 현안 사항인 수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어항청소선별 청소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항901호(군산 소재) :

14개항에서 4만8,370kg △어항902호(목포 소재) : 10개항에서 3만1,050kg △어항903호(고흥 소재) : 14개항에서 9만3,000kg △어항904호(여수 소재) : 16개항에서 4만9,300kg △어항905호(통영 소재) : 14개항에서 4만3,350kg △어항906호(포항 소재) : 16개항에서 21만9,700kg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18개항에서 11만5,100kg 등이다.



■ 서거차항에서 폐그물을 인양하고 있는 어항 902호

올해어항공사 대부분 예정공정 상회

현지점검 시공평가 등 건설시공에 만전

올해 어항시설공사는 예년 대비 순조롭게 진행, 7월 15일 현재 전체공사진도가 예정공정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총 50개항 공사중 지난 15일 현재 분기별 발주계획에 따라 전체사업의 99.2%(사업비 기준)인 49항이 착공, 대부분 예정공정을 상회 전체공정의 63.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풍진로권 및 공사규모가 큰 항의 조기발주와 완성단면 위주의 구조물시공 및 태풍기 이전 주요공정 마무리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항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건설시공과 관련, 연초부터 현지 점검 및 시공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항공사의 건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71개 육지소규모어항 체계적 개발

해양수산부 이용실태 파악후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971개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을 인수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인수한 971개 육지소규모어항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항법상 지정항이 아닌 소규모어항 개발은 지난 88년 당시 수산청에서 내무부로 이

관되었다가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이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도서지역 소규모어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개발하고 있다.

어촌주민의 일상생활 터전이며 어업근거지로 이용되는 기초어항인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은 72년에서 87년까지 수산청에서 지원했고, 88년 내무부로 이관된 이후 지난 97년까지 육지소규모어항 4

개년 개발계획 및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이 시행됐으며, 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5개년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39개 연안 시·군의 69개 항을 대상으로 국비 28억 6,000만원, 지방비 44억 6,700만원 등 총 73억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가 인수한 971개 육지소규모어항의 시·도별 현황은 △부산 28 △인천 10 △울산 16 △경기 22 △강원 30 △충남 22 △전북 14 △전남 312 △경북 90 △경남 354 △제주 73개 어항이다.

1988년 당시 수산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됐던 소규모어항 개발이 제2차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월 29일 다시 현재의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환원됐다.

물론 도서지역 소규모어항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그대로 개발하고 있어 이번에 환원된 것은 육지 소규모어항이지만 그 숫자가 971개항, 이용 어선이 2만 9,850척, 이용 어업인이 무려 28만 1,400명이나 되니 결코 만만하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육지 소규모어항이란 육지 연안의 어촌 마을에 위치한 자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로서 규모가 작아 어항법상의 지정어항이 아닌 항·포구를 말한다.

그러나 역할이나 이용 실태를 보면 새삼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어촌 주민의 일상생활 터전인 어업 근거지로 이용되는 기초어항인데다 지정어항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마을 정주기반이며, 소형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 활동에 필요한 어업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소규모어항은 우리 신체의 신경계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규모어항의 개발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것처럼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통상 국비 50%, 지방비 50%로 개발되는 소규모어항과 관련,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넘어온 올해 예산이 불과 28억원이란 사실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육지 소규모어항이 지금보다 훨씬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데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소규모어항 개발은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어선의 안전 계류를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어민의 안정된 생활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IMF이후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란 측면에서도 좀더 적극적이면서도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소관부처 이관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주범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된 육지 소규모어항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에 투입된 총예산이 불과 451억원이란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 중인 육지 소규모어항 제2차 5개년 개발계획의 예산은 국비 지방비 합쳐 1차의 2배인 900억원에 달하지만 2년 차인 올해 현재까지 실제로는 그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구호만 거창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게다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을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란 부문에만 무게를 싣다 보면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행히 해양수산부가 이를 간파, 육지 소규모어항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기존의 제1종 어항 및 제2종 어항과 연계개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되는바 없지 않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체계적인 어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수산관련부처가 이 일을 도맡아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지만 어쨌든 뉘엿겨나마 업무조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소규모어항 개발의 지휘봉을 잡게 되어 앞으로의 개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

3만척 가까운 어선과 28만 명이 넘는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은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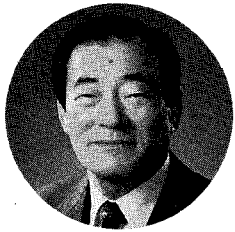
이를 위해선 적절한 시점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도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을 통한 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활성화 되어야

동

정

'한국의 해양수산정책' 특강



鄭相千 해양수산부 장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해양수산정책'을 주제로 특강, 7일에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부산·경남지역 21세기 해양정책 포럼'에 참석, 이어 김천항 수산물종합 가공단지, 수협물류센터, 부산신항만 건설현장을 순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9일에는 평택시 남부 문예회관에서 열린 평택항 국제포럼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6월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30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일보사 주최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 학술심포지움에 참석, 7월1일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총동문회가 주최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추진 전망과 북한경제 분석' 강연회에 참석, 22일에는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을 예방, 23일에는 자민련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포매립지 현지를 시찰.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7월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77차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7일에는 경북 구룡포항에서 열린 근해오징어채취기어선 36척의 러시아 경제수역 출어식에 참석, 9일에는 수협 10층 회의실에서 99년 상반기 결산점검과 하반기 대책을 위한 지회장 회의를 개최.

▲최상욱 남화도전주식회사 회장은 7월3일 시립강생원 증축 준공식 및 자립강생보고회의에 참석, 13일에는 99

범죄예방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에 참석, 14일에는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 22일에는 전남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7월12일 송원문화재단 제4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165명의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 13일에는 99범죄예방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에 참석, 15일에는 광주은행 이사회에 참석, 23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3일 아태평화재단 운영위원회에 참석, 6일에는 광주광역시 기관장 정기조찬회에 참석, 14일에는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2일 파키스탄 NHA사장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 6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대전 스타피아호텔 개관식을 개최, 15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에 참석, 17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제철철 기념 행사에 참석, 19일에는 헌정회 중진임원 청와대방문 오찬에 참석, 24일에는 제주도 능률협회 세미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7월5일 해남 양촌제공사현장에 출장.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5일 지경-기마간 도로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24일 제주국제회의회에 참석, 27일에는 김경길 정무장관 초청만찬회에 참석.

△항만개발과장 전건표 △수산정책과장 김병규 △어업정책과장 정도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박재준 △국립수산진흥원 기획관리과장 변진식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장 나원근 △인천광역시 과견 신 명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과견 이재완 (7월 1일자)

□부이사관 승진 △해운물류국 물류기획과장 이선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 오공근 □서기관 승진 △

▲해양수산부 □국장승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재근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장맹수 △장관비서관 임광수 △해양환경과장 이인수

▲유간성씨(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고문)는 최근 주식회사해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1번지(미라클빌딩), 전화번호 : 831-9312, 4116.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지난 7월2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2·9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항에 대한 일반현황을 설명했다.



■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어항907호의 최일선 선장과 김용호 기관장은 지난 7월2일 강원도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항 퇴적물 준설작업과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대비한 주변환경 개선 및 어선 안전정박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안전계획담당관실 김병수 (7월 15일자)

취 임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일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출장.

연 구 출 장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8-25번지 진도빌딩 5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218-4294

▲김광섭씨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화번호 : 0391)660-1136

변 경

의 의 동 정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유간성씨(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고문)는 최근 주식회사해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1번지(미라클빌딩), 전화번호 : 831-9312, 4116.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일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출장.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8-25번지 진도빌딩 5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218-4294

▲김광섭씨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화번호 : 0391)660-1136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유간성씨(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고문)는 최근 주식회사해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1번지(미라클빌딩), 전화번호 : 831-9312, 4116.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일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출장.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8-25번지 진도빌딩 5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218-4294

▲김광섭씨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화번호 : 0391)660-1136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毅) 부이사장은 5월25일 개최된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연 구 출 장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일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출장.

변 경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8-25번지 진도빌딩 5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218-4294

▲김광섭씨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화번호 : 0391)660-1136

의 의 동 정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유간성씨(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고문)는 최근 주식회사해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1번지(미라클빌딩), 전화번호 : 831-9312, 4116.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일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출장.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8-25번지 진도빌딩 5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218-4294

▲김광섭씨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화번호 : 0391)660-1136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유간성씨(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고문)는 최근 주식회사해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1번지(미라클빌딩), 전화번호 : 831-9312, 4116.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일본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출장.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38-25번지 진도빌딩 5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3218-4294

▲김광섭씨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화번호 : 0391)660-1136

▲일본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회장은 지난 5월24일 개최된 제56회 통상총회에서 전국어항협회 회장에 연임됐다.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가와구치 다케시(川口

▲류청로씨(부경대학교 교수)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07번지 대원아파트 105동 7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51)701-2501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신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철화)
- 개인
- ▲권오윤씨(주식회사 제양인터내쇼날 사장)
- ▲김두원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0호 선장)
- ▲김승련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 ▲김우현씨(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 ▲김점곤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8호 선장)
- ▲박덕만씨(전 해양수산부 서기관)
- ▲박호성씨(진도군청 수산과)
- ▲배익구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6호 선장)
- ▲양기원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4호 선장)
- ▲우병화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6호 선장)
- ▲원태중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2호 선장)
- ▲이강수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7호 선장)
- ▲이상조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5호 선장)
- ▲이현우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5호 선장)
- ▲임무성씨(삼일건설산업 주식회사 회장)
- ▲임영관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3호 선장)
- ▲정대윤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4호 선장)
- ▲피경만씨(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 상무)
- ▲한대희씨(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7호 선장)

정부항만공사 민자사업자에 위탁

1천억 규모 준설공사도 대상

정부항만공사를 발주에서부터 공사관리까지 공사전반에 대해 민자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재정사업인 부산신항 호안2공구 공사를 부산신항 민자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에 공사발주에서부터 공사관리까지의 제반과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위해 예

산지원문제 등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부산신항만(주)과 위탁시행협약을 체결, 내달중 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정부항만공사를 민자사업자에 맡겨 공사관리 일체를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발주될 신항만 등 대규모 항만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민자사업자에 맡겨

공사를 위탁할 공사는 신항만내 호안2공구 공사로 2,437억원의 공사비가 계상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만공사의 경우 정부사업과 민자사업이 대부분 같은 현장에서 이뤄지다 보니 장비인력 등의 유용성을 통한 공기단축 등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유도키 위해 이처럼 민자사업자에게 사업일체를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항청소선 소식

8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8. 2~ 7 8. 17~ 18 8. 23~ 28	선유도 및 연안 군산항 어청도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8. 10~ 19	계마, 안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8. 9~ 14 8. 23~ 28	녹동 나로도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8. 9~ 14 8. 23~ 28	국동 들산, 안도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8. 9~ 14 8. 23~ 28	통영, 비진도 구조라 및 연안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8. 2~ 7 8. 16~ 21 8. 30~ 31	축산, 병곡, 백석 후포, 사동 직산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8. 2~ 7 8. 16~ 21	속초, 대포 대진, 거진, 아야진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우리모두 앞장서자** **남 몰래 버린 오물 나모르게 오는 피해**

제11차 해외어항어촌 조사단 파견

어항기술 발전 효율적 관리에 기여

일본·뉴질랜드·호주 등 3개국 오는 10월 19일 등정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10월 19일(화)부터 28일(목)까지 9박10일동안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어항어촌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시즈오카(靜岡)현 소재 니시우라(西浦)어항 시즈우라(靜浦)어항 우치우라(内浦)어항, 가나가와(神奈川)현 소재 오다와라(小田原)어항

미사키(三崎)어항을 조사하고, 환경정화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항과 이스트피싱포트 그리고 세계 3대 미항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항의 최첨단 시설과 브리스베인의 어항어촌 등을 예년과 같이 사찰국 어항관련 기관 단체의 공식 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 회가 매년 주관하는 해외어항어촌 조사는 선진국의 어항시책과 어항건설 현황, 관리상태를 현지에서 직접 두루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의 추진과 효율적인 어항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 어항어촌 조사 세부 추진일정표

월 일	행선	교통	시간	일정
제 1 일 10.19(火)	서울 東京	KE001 전용버스	10:30~12:30 15:00~15:30	김포공항 - 成田공항 도착 어항관련기관단체 방문 또는 시내관광 東京 1박
제 2 일 10.20(水)	東京 沿津 하코네 熱海	전용버스	09:00 15:00	靜浦·内浦·西浦어항 시찰 하코네 관광 熱海 1박
제 3 일 10.21(木)	熱海 小田原 東京	전용버스 선편	10:00~13:00 15:00~17:00 18:00	小田原어항 시찰 三崎어항 시찰 東京 1박
제 4 일 10.22(金)	東京 成田	전용버스 QF360	04:00 09:00 21:45	東京어시장 시찰 東京시내 관광 成田공항 출발
제 5 일 10.23(土)	브리스베인 폴드코스트	전용버스	07:20 19:00	브리스베인 도착 브리스베인 어항어촌 시찰 브리스베인 1박
제 6 일 10.24(日)	폴드코스트 시드니	QF515	09:40 11:10 18:00	브리스베인 출발 시드니 도착 시드니 1박
제 7 일 10.25(月)	시드니	전용버스	09:00	시드니항 시찰 및 해운항만청 방문 시드니 1박
제 8 일 10.26(火)	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QF119	07:05~12:55	시드니공항 출발 오클랜드 도착 오클랜드항 및 SUMINOVICH 시찰 로토루아 1박
제 9 일 10.27(水)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버스		로토루아 관광 및 귀국준비 오클랜드 1박
제 10 일 10.28(木)	오클랜드 시드니 서울	QF104 QF367	07:45 08:15 09:30 19:30	오클랜드 출발 시드니 도착 시드니 출발 서울 김포공항 도착

어항시설도 민간투자법 적용

민자유치처리요령 개정

그 동안 어항법을 통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했던 어항시설이 앞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도 사업추진이 가능케 됐다.

또 민간 사업자 제안방식의 민자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청의 사업성 검토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을 이 같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항만시설과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해서만 민간투자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민간투자법령에서 어항시설도 사회간접자본시설

로 규정함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항공사에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특성에 맞춰 어항법과 민간투자법 중 하나를 선택해 민자유치를 추진하게 돼 어항부분의 민자유치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어항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어항법, 대규모 어항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절차는 복잡하더라도 정부 재정지원 등이 가능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선호하게 될 전망이다.

36개 1·3종어항 항공사진촬영

한국어항협회 어항화보 제작 계약

해양수산부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항의 개발 이용실태 등 어항현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항화보를 제작, 어항개발을 위한 자료 및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어항협회는 어항 항공사각사진촬영에 의한 어항화보를 해양수산부 용역사업으로 제작키로 하고 지난 6월 23일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20일 발행될 이번 어항화보 제작은 네 번째 착수되는 것으로 36개 1·3종어항의 항공 전경 항공사각사진, 시설계획평면도, 인구 어선수 어획량 등 항세와 건설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이와함께 13개항에 대한 리플렛도 제작된다.

어항화보는 어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어항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항의 관리 환경정비사업 및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그 동안 정부용역사업으로 53개 1·3종어항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항공사진촬영 및 어항화보를 제작했다.

이번 어항화보에 수록될 36개 어항은 다음과 같다.

- △강원(1개항) : 임원 △경북(4개항) : 죽변 사동 강구 감포 △경남(7개항) : 능포 지세포 다대다포 옥지 물건 신수 미조 △전남(13개항) : 국동 돌산 내발 녹동 시산 사동 마량 소안 어란진 서망 전장포 안마 계마 △전북(4개항) : 연도 말도 격포 위도 △충남(2개항) : 안홍 외연도 △제주(5개항) : 도두 김녕 위미 모슬포 신양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자 지정방식을 공개 경쟁과 협상 등 두가지 방식을 병행, 적용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평가가 우수한 업체와의 협상만으로 사업자를 지정키로 했다.

24개 권역 어촌종합개발 본격 추진

정부는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평택항개발 등 기존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군사시설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서도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을 경우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양개발 기본계획안과 골재채취법시행령 중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양개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오

는 2000년 이후 지원대상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해양생물자원개발을 위해 양식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며 남극자원의 개발사업으로는 남극 해저지질 조사와 오호츠크해 해양자원 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 139건의 각종 해양개발사업에 민간자본 5,653억원을 포함한 총 3조 2,205억원의 자금을 투입, 인천북항 목포신항 영일만신항 울산신항 등 계속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택항2단계 개발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방파제 설계기술 도입 추진

파랑제어효과 크고 경제성도 뛰어나

해양수산부는 방파제 건설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방파제 설계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시공되는 방파제의 경우 주피복재로 지난 50년대에 개발된 TIP(테트라포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공 비용 절감과 항만설계기술 발전을 위해 최근 미국에서 개

발된 선진방파제 설계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위해 최근 건설업체를 비롯, 설계엔지니어링업체 학회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선진설계기술 도입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국내 적용시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모색했다.

선진방파제 설계기술은 일면 코아록이란 소파블록으로 미육군공병단의 연안공학연구

센터에서 최근 개발됐으며 파랑제어효과가 우수하고 안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의 방파제 전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IP에 비해 경제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이 기술이 국내 방파제 공사 적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빠른 시일안에 기술도입을 추진, 국내 항만공사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선진방파제기술을 국내 항만공사에 도입할 경우 대략 TTP시공에 비해 30~40%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 선항만건설이 본격화되지 않아 방파제 건설비 중 TTP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440억원에 머무르고 있으나 선항만건설이 본격화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TTP건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가는 신기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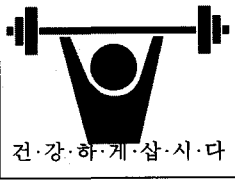
아름다운
해안공간을
창조
하겠습니다

- 代表理事 丁 烜 一
技術士(港灣 및 海岸)
- 副會長 宋 光 燮
技術士(港灣 및 海岸)
- 副社長 金 成 俊
技術士(土木施工, 建設安全)
- 專務理事 吳 世 汎
技術士(港灣 및 海岸)
- 專務理事 鄭 海 雄
技術士(港灣 및 海岸)
- 常務 羅 基 恒
技術士(港灣 및 海岸)

- 理事 金 永 秀
技術士(港灣 및 海岸)
- 理事 高 永 燾
技術士(土質 및 基礎)
- 理事 金 鈞 炯
技術士(港灣 및 海岸, 土木構造)
- 部長 崔 棟 洙
技術士(建設 安全)
- 次長 金 相 永
技術士(土木 構造)

株式會社 韓亞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9 전화번호 : (02)517-9052



인스턴트 식품에 무·우영이 좋다

제2차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포로가 된 영국 사람이 있었다. 네덜란드 사람이 '썩은 무'나 '나무 뿌리'를 먹었다고 해서 그 대우에 대단히 원망을 품었다는 말을 했는데 실은 '썩은 무'는 단무지이고 '나무 뿌리'는 우영이었던 것이다. 시대는 변해 현재 일본에는 수많은 서양 야채가 보급되어 있어서 부록커리나 카리후라워 같은 서양 야채가 슈퍼에 진열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야채라도 무나 우영같이 옛날부터 먹었던 쪽이 훨씬 더 섬유질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소위 일식이란 섬유질의 보고였던 것이다. 일본인에게 대장암이나 변비가 적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식사 때 먹는 야채의 비율이 많았던 것만큼 성인병 또한 서구인에 비하면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야채 무침이나 비지 같은 '엄마의 맛'을 먹는 것이 줄어들고 된장국 대신 아침에는 빵과 커피를 드는 모습으로 양식화되는 물결이 확산되고 또 슈퍼에서 파는 무에는 잎사귀가 달려 있지 않은데, 설령 붙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깨끗이 버려 버리기 때문에 점점 섬유질의 섭취량이 줄어든다. 레타스나 사라다용 채소 같은 서양 야채를 먹는 것으로 '나는 매일 야채를 먹

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일이 다. 옛날에는 완두콩은 콩까지째 먹고 죽순의 딱딱한 곳도 먹었는데 지금은 먹기 쉬운 부분만을 골라 먹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치스런 방법이 영양면은 그만두고라도 중요한 섬유질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서양 야채 중에서 섬유질이 풍부한 것은 셀러리 정도인데 셀러리를 매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역시 갖가지 야채를 사용해서 끓인 스프나 카레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많이 먹지 않으면 섬유 부족은 보충할 수가 없게 된다. 요즘은 카레든 스프든 모두 인스턴트로 반조리 식품이 되어 있다. 이것들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적은 양의 양파나 감자·당근이 들어 있는데, 거의가 '장식'에 불과하다. 만일 이런 즉석 제품을 먹는다면 거기에 야채를 곁들여서 먹는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 섬유질이 많은 야채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음식물임과 동시에 노화를 방지해 주는 것이다. 정제로 된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먹어 안될 것은 없지만 섬유질은 그 자체를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잡다한 야채를 가득 넣은 고향의 맛을 내 주는 요리를 먹도록 하자.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33]

第3章 基礎工

사석투입상황을 그림 3.4.7에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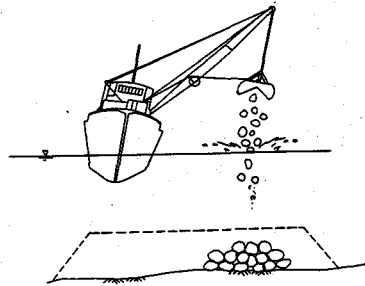


그림 3.4.7 기초사석의 투입

이나 블록 등의 거치저면 및 안벽전면의 고르기로 고도의 고르기 정밀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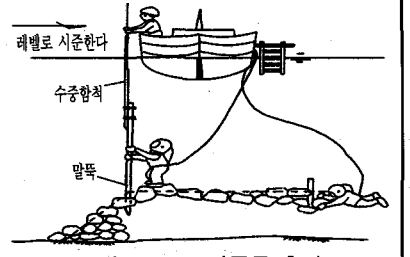


그림 3.4.8 기준을 측량

(3) 위치표시
시공구역에 설치한 표식은 특히 수심이 얇은 장소에서는 조류, 파랑,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으므로 위치를 재확인한다. 반입시에는 한장소에 산적되지 않도록 잠수부의 지시로 투입한다.

사석 투입 구역을 확인하고 조류, 파랑, 풍향, 거트선 및 태선의 이동능력, 다른 항행선박 등을 고려하여 투입한다.
동시에 사석의 검수(재질, 형상, 크기, 더러움, 체적 등의 확인)를 한다.

해상에 있어서의 검수는 대체로 스틸테이프에 의한 용적검수가 많다.

(4) 투입지시

투입장소의 상황을 파악한 잠수부의 지시에 따라 투입한다.
잠수부의 투입지시는 투입장소및 수심을 확인하면서 적절하게 시행한다. 또 필요수량이상의 투입은 또 다른 일손을 초래하므로 계획높이 부근의 투입은 특히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5) 투입

사석투입은 공사연장방향이나 단면방향 모두 한쪽에서 하는 것이 규격을 결정하기 쉽고, 후속의 고르기 작업과의 평행작업이 가능해진다. 사석의 시행단면이 크고 연장도 길 경우에는 구획을 하여 마무리 단면까지까진 속고르기를 하고 그 후에 마무리 투입을 한다.

(6) 기준틀

설계단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기준틀을 설치한다.
기준틀은 법선은 내고 높이를 이동시켜 시공높이나 폭 및 비탈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략 5~10m간격으로 설치한다. 대체로 수중작업이 되기 때문에 해수의 투시도가 좋은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사석의 마무리 투입후 바닥을 고르게 하여 법선말쪽, 비탈머리말쪽, 비탈끝말쪽 및 중간말쪽(보조말쪽)을 타설한다. 이들 말쪽사이에 고르기의 마무리 단면이 되도록 관재를 건너질러서 고정한다.

(7) 고르기

사석고르기는 기준틀에 따라서 시행하는 잠수작업이 많으며, 기초고르기와 속고르기가 있다.
기초고르기는 제체가 되는 케이스

속고르기는 밀다짐블록·소파블록의 거치저면고르기와 사석고르기가 있으며, 각기 허용오차는 다르다.

또 피복석을 고를 경우는 피복고르기라 한다.

속고르기는 기준틀대로 철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보충하여 그위에 돌끼리의 맞물림을 단단히 하는 것으로서 고르기면이 거의 가지런하도록 한다.

기초고르기는 대체로 구조물이 직접 접하는 면이므로 특히 평탄성이 요구된다. 속고르기를 한 후, 자를 기준틀의 관재상에서 이동시키고 그 요철부는 쇠지레나 잠수부선의 윈치(winch) 등으로 조정하고 기초고르기의 허용범위에 넣어둔다. 이때 석재가 큰 것을 표면에 작은 것을 사이에 채워 맞물림을 단단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복고르기는 기초고르기와 같이 기준틀을 설치하고 맞물림을 주체에 면이 거의 가지런하도록 한다.

문화시민 생활윤리

글로벌 에티켓

5. 병 문안 매너
○ 전화나 편지로 상태를 물은 뒤 면회시간을 정해야 함
○ 화려한 복장이나 스포티한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장례식 분위기의 검은색 옷, 진한 화장 등도 자제해야 함
○ 면회시간은 수술 뒤 수일 내에는 5-15분, 회복기라도 30분 이내
○ 환자에게 '많이 아요'였네 등' 건강에 대한 솔직한 지적은 피해야 함
○ 꽃을 선물하는 경우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 꽃, 장례식 이미지가 붙은 국화는 피해야 함
6. 식사매너
□ 식당에 들어가기 전
○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 식사 전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야 함
○ 진한 향수는 식욕에 영향을 주므로 삼가 하여야 함
○ 여성의 경우 립스틱이 물컵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에 휴지를 가볍게 대는 배려 필요
□ 의자
○ 웨이터가 의자를 빼주면 가볍게 앉음
○ 의자를 너무 뒤로 빼서 앉으면 타인의 보행에 방해가

- 될
○ 일단 의자에 앉으면 허리를 쭉 펴고 손은 무릎 위나 테이블에 가볍게 놓음
○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거나 다리를 꼬는 것은 좋지 않음
□ 식사 속도
○ 동석자와 조용히 환담하며 식사하는 것이 테이블 매너의 기초
○ 일행의 먹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필요 있음
○ 소리를 내어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님
○ 입 속에 음식이 있을 때 소리를 내어 말해서는 안됨
○ 대화의 주제는 여유있고 즐거운 것을 택해야 함(종교, 정치, 질병 등은 삼가)
7. 초대매너
□ 현 관
○ 초인종이 울리면 곧바로 현관으로 나가야 함
- 가능하면 가족전원이 마중하는 것이 좋음
○ 응접실로 안내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좋음

- 응접실
○ 손님에게 상석을 권한
- 상석은 정원이 보이는 자리 또는 전망이 좋은 자리가 상석이 될 수도 있음
○ 만약 선물을 가져 왔으면 바로 치우지 말고 5분정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좋음
8. 전화 매너
□ 전화 받을 때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함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을 것
○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매너임
○ 상대방의 말을 메모하고 복창하여야 함
○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할 것
○ 상사나 동료가 외부에서 전화했을 때 주위 사람이 들리도록 연락사항을 물어보아야 함
○ 수화기는 상대방이 끊은 뒤 조용히 내려놓아야 함
□ 전화걸 때의 요령
○ 전화걸기전 미리 말할 내용을 메모
○ 상대방이 지금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반드시 확

- 인
○ 결론을 미리 말한 뒤 설명시작
○ 상대가 자리에 없을 시 돌아올 시간의 확인 필요
○ 대화 도중 끊기면 전화건 사람이 다시 거는 것이 원칙
○ 근무시작 30분 이내 점심시간 30분 전후는 전화를 피해야 함
- 아침 9시 이전과 저녁 10시 이후는 피해야 함
○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말도 없이 끊는 것은 최악의 매너임
-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전화번호 확인 필요
□ 팩시밀리 매너
○ 전화와 편지의 중간형태인 팩시밀리는 발송시간을 잘 선택하여야 함
- 심야 또는 이른 새벽은 가급적 피해야 함
○ 내용만 보내지 말고 제목, 송수신인 전체매수 등을 기록한 표지를 함께 보내야 함
○ 중요한 내용이라면 송신 뒤 바로 전화로 확인 필요
9. 방문매너

- 방문할 때 주의 할 점
○ 방문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
- 필요한 서류, 자료, 목적 등을 미리 문서로 정리
○ 약속시간 5분전에 도착해야 함
○ 늦어질 경우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함
○ 복장을 단정히 한 후 사무실에 들어가야 함
- 외투는 입구에서 벗고 뒤집어 접는 것이 예절
○ 초인종은 조용히 눌러야 함
○ 응접실에서 앉아서 기다릴 것을 권할 경우 말석에 앉아야 함
- 출입구에서 멀수록, 가장 편해 보일수록 상석임
○ 서류, 필기도구, 명함 등은 책상 위에, 가방은 바닥에 놓아야 함
○ 대기시간이 길 경우도 실내를 거닐거나 장식 등을 만져서는 안됨
○ 방문시간은 식사시간 업무시간 등을 감안 오전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가 바람직함
○ 선물을 할 경우 상대방 회사부근에서 고르는 것은 좋지 않음

제 2 건국운동

제 2 건국운동